

“호국·독립정신 계승... 민·군·기업 아름다운 동행”

(주)호원·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 육군 제31보병사단 방문 상생 협력·보훈 선양...녹천부대와 특별한 인연 눈길

(주)호원과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가 육군 제31보병사단을 찾아 호국·독립정신 계승과 민·군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주)호원과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는 11일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기업·지역사회·군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과 보훈 선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양승빈 (주)호원 부사장과 교육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장이 참석해 김도열 제31보병사단장과 환담을 나누고, 호국의 의미와 안보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주)호원은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 장애인 사기 진작과 부대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의 독립유공자 선양사업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펼

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학생·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에서는 양진석 (주)호원 회장과 광남일보가 해피니스CC 송별 만찬을 마련하는 등 해외 동포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였다.

또 인제 육성과 문화·체육·보훈 분야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기업의 이익은 지역과 함께 나눈다’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제31보병사단과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의 특별한 인연도 눈길을 끈다. 사단 예하 ‘녹천부대’는 교육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의 중조부이자 호남 의병을 대표하는 의병장 녹천 고공순 선생의 호를 따 명명된 부대다.

고공순 의병장은 을미·정미의병 당시



(주)호원과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는 11일 육군 제31보병사단을 찾아 기업·지역사회·군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과 보훈 선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세번째부터 양승빈 (주)호원 부사장, 김도열 육군 제31보병사단장, 교육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장.

호남 의병을 이끌며 국권 수호와 항일투쟁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장은 “호국의 정신과 독립의 정신은 결국 하나의 뿌리”라며 “(주)호원과 제31보병사단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와의 상생 협력과 보훈 선양 활동을 한층 제31보병사단은 광주·전남 지역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명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 실질적인 청년 취업 ‘진로의 길’ 모색 눈길

전남대 환경공학과 학생 참여 견학부터 취업 멘토링까지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최근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환경과 진로를 JOB다!’ 프로그램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과 취업상담을 연계해 대학생들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환경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환경공단 대회의실과 제1하수처리장에서 진행됐으며 △공단 소개 및 취업 정보 안내 △환경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현직자 그룹 멘토링 △SNS 이벤트 ‘취준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단 주요 업무와 기관 특징, 채용 정보, 직무 소개 등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 공공기관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환경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환경과 진로를 JOB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이론교육과 함께 한 이수처리장 현장 견학을 진행하며, 환경기초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직자 그룹 멘토링은 MZ세대 청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 정보와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행사 참가 학생들은 취업 준비와

관련한 내용을 ‘환·경·공·단’ 등을 활용한 이 행사로 작성하는 SNS 이벤트 ‘취준진단’에도 참여했다.

공단은 우수자를 선정한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청년들에게 환경 분야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며 환경교육과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공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친환경 가치 확산과 청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1일 오전 신동하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70여명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오월정신 계승” 광주 동구, 민주묘지 참배

공직자 70여명 참여...민주·인권·평화 정신 함양

광주 동구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오월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동구는 11일 신동하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과 신규 공직자 70여 명이 광주 북구 유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 영령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 계승과 인권을 우선하는 공직자 기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2026년 임용된 신규 공직자들도 참배 일정에 함께 참여해 선배 공직자들과 오월정신을 공유하고 주민과 지

역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다졌다.

신동하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민주 영령의 뜻을 기리고 오월정신 계승의지를 다졌다.

신동하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5·18은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오월의 기억이자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야 할 가치다”며 “오월정신이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유·계승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이순형 동신대 교수

‘햇빛·바람소득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 산하 재생에너지 기반 모델 구축



발전설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력망과 주민 참여, 이익 공유, 지역 산업, 농어촌 공동체 회복이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햇빛과 바람은 지역이 가진 소중한 미래 자산이며, 이를 주민 소득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력계통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햇빛소득마을과 바람소득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기공학과 전력 계통,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온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소득과 연결하는 ‘햇빛소득마을’ ‘바람소득마을’ 모델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하며 지역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확산에 힘써왔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장흥군 용산면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용장학회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장흥 용산면 부용장학회, 지역 인재 양성 ‘온힘’

초등학생 3명에 장학금 지급

장흥군 용산면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용장학회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김인규 전 군수가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이복흥 부용장학회장, 안관기 용산면장, 김희원(금곡마을), 정남진세마을금고가 각각 100만원씩 기부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부가 이어져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용장학회는 용산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생 3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처음 시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뜻이 모인 결과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김인규 부용장학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흥 부용장학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 버스’ 운영

유·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양궁·펜싱 등 체험 다채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유·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서구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 버스’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꿈과 희망을 키우고 평생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구가족센터 소속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스포츠버스 체험과 작은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전문 강사의 진행 아래 VR·WII PLAY 체험존이 운영됐다. 또 볼풀공 던지기, 고무마 릴레이 등 신체활동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 작은 운동회도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가 우리 동네로 직접 찾아오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이라며 “스포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